



우리가락 project
제12회 동서악회 정기연주회




숨색다른 가요? 현대음악과 고려가요 歌謠의 만남

길 석 근 예술감독
주 재 근 사회




일시 / 2022년 10월 12일 (수) 오후 7시 30분

장소 / 국립국악원 우면당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한국문화재단

 Contemporary Culture Group



주최/동서악회(The Society for East-West Music) 후원/서울문화재단 · (사)한국작곡가협회 · 우리가락교육연구회 공연문의/010-2324-9978 전석 2만원



어느덧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온 가을 향기 짙은 이 저녁,

여러분들을 모시고 동서악회의 제12회 정기연주회를 갖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色多른가요? 현대음악과 고려가요歌謠의 만남>은 동서악회가 작업해오던 우리가락 Project 열두 번째 시리즈로서 고려가요를 주제로 합니다. 언어의 문명이 시작되기 전부터 콧노래로 전해 내려오던 어머니의 선율! 현재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로 한국의 K-Pop이 주목받고 있듯이 한국인으로서 한국 “가요”라는 실타래를 잡고 거슬러 올라가면 700여 년 전 우리 선조들의 삶과 애환을 담아 평민들과 사대부들을 포함한 민중들에게 널리 전해졌던 “고려가요”를 만나게 됩니다. 고려가요라는 문화유산이 지금은 불리지 않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예술가들에게 도전 과제이자, 현시대에 언제든지 쓰일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프로그램은 고려가요의 주제 중 자연, 효, 슬픔, 사랑, 군무에 해당하는 곡들을 동서악회 작곡회원 5분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젊은 작곡가의 특색 넘치는 만화경을 통해 재해석하여 소개하는 작품들로 준비하였습니다. 현대작곡가들에 의해 리메이크를 넘어서 이 시대의 정서에 맞는 새롭고 창조적인 음악으로 재탄생시킬 고려가요가 우리들의 가슴에 감동과 기쁨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연을 위해 작품을 써주신 작곡가들, 연주로 작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연주자와 스텝들, 그리고 동서악회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음악회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며...

2022년 10월

동서악회 회장 이 복 남 올림

주시열 “연상聯想” - <동동> (세계초연)

대금_김규환 / Alto Flute_백은비 / Bass Flute_최윤희

류경선 “孝를 그리다”

<사모곡思母曲> (세계초연)

해금_김솔림 / 25현 가야금_이해정

<상저가相杵歌> (세계초연)

해금_김솔림 / 25현 가야금_이해정 / 거문고_박영승

/ 아쟁_오하림 / 국악 타악_이유정

이효원 “끝”- <납씨가>, “시작”- <유림가> (세계초연)

대금_윤석만 / 25현금 I_성현주 / 25현금 II_최연수 / 장구_이유정 / 무용_권용상

최영아 “위로(Consolation)”- <청산별곡> <횡살문> (세계초연)

클라리넷_김욱 / 대아쟁_이화연

박윤경 “비두로기”- <유구곡> (세계초연)

“가시리” - <귀호곡> (세계초연)

판소리_김용화 / 테너_오세원 / 바리톤_남형근 / 베이스_노광근

/ 피리_성상윤 / 타악_김용진

이복남 “송인送人”- <서경별곡> (세계초연)

정가_구민지 / 민요_김진찬 / 생황_김효영 / 해금_허윤재

/ 거문고_박영승 / 국악 타악_박경진

“더러둥성 다리러디러_색,계 色,戒”- <쌍화점> (세계초연)

정가_구민지 / 민요_김진찬 / 생황_박해진 / 해금_허윤재 / 거문고_박영승

국악 타악_박경진 / 무용_권용상 / 무용_송한나

주시열 “연상聯想” - <동동>

이 작품은 고려가요 ‘동동’의 가사와 가사 속 느껴지는 리듬감을 주요 아이디어로 삼아 작곡되었다. 특히 ‘동동’ 각 연의 마지막 후렴구인 ‘아으 동동다리’는 북과 전통 악기들을 묘사한 의성어로서 반복을 통해 구조적 통일성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대금을 포함한 세 악기가 특정 선율과 리듬을 반복하고, 동시에 ‘동동’의 후렴구를 클로즈업(Close-up)하여 곡을 구성하였다. 작품 전반적으로 대금이 중심이 되며 알토 플루트와 베이스 플루트는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대금과 음색이 비슷한 플루트를 선택하여 대금의 중심 선율과 그로 인해 생성되는 여러 잔향을 두 대의 플루트가 이어받아 마치 에코(Echo)와 같은 결과로 나타나게 하였다.

고려가요 ‘동동’에는 가사를 통해 느낄 수 있는 특정한 리듬감이 존재하는데 이를 이 작품에 묘사하였다. 이러한 리듬감의 표현은 작품의 형식적 구분점이라 할 수 있는 중심음의 이동을 통해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 ‘Eb’ 음을 중심으로 하여 이후 여러 음고를 거쳐 다시 ‘Eb’ 음으로 회귀하는데 이 때 세 악기의 리듬이 점차적으로 변모한다. 13연에 걸쳐 시상이 변화하는 ‘동동’의 특성에 따라 이 작품 역시 여러 음악적 장치(리듬, 중심음 등)를 통해 하나의 관념이 다른 관념을 불러일으키는 현상, 즉 ‘연상’이 된다.

류경선 “孝를 그리다” - <사모곡思母曲>, <상저가相杵歌>

<사모곡>

호미도 놀히어신 마루논
날 7티 들리도 어쁘새라
아바님도 어시어신 마루논
위 덩더등성
어마님 7티 괴시리 어빠라
아소 님하 어마님 7티
괴시리 어빠라

<상저가>

듣곡동 방해나 디히히애
게우즌 바비나 지서히애
아바님 어마님 스기 받잡고 히야해
남거시든 내머고리 히야해 히야해

고려가요 <사모곡>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비교하여 어머니의 사랑이 더 크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모의 사랑을 어느 한 편으로 측량할 길이 없겠으나, 아기를 잉태하여 출산하고 거두어 먹이며 장성한 큰 자식도 품 안의 아기로 여기며 아끼고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구구절절한 가락과 음조의 해금과 가야금으로 표현해보았다.

<상저가>는 부모 공양에 대한 소박한 심정을 진솔하게 그려 낸 고려가요이다. 핵가족 시대에 부모를 모시는 문화가 때로는 구습처럼 묘사되기도 하지만, 상시 부모를 공경하고 떠올리는 마음을 표현하는 장면을 보면 부모님께 대한 감사함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요즘이다. 나의 부모님은 평생 팔팔하신 마흔 즈음이었거라 철없이 여기고 의지하며 불효했던 과년한 딸이, 반성하며 팔순 중반이 훌쩍 넘으신 부모님을 우러르는 마음을 표현해 보았다.

이효원 “끝” - <납씨가>, “시작” - <유림가>

이 곡의 아이디어는 납씨가와 유림가의 작곡배경에서 얻었고, 곡의 순서는 조선시대 악장, 민요 등을 수록한 악보인 사용향악보에 수록된 순서로 배정하였다.

1. <납씨가>는 태조가 야인을 격파한 무공을 노래하는 곡으로 작자는 정도전이다. 정도전은 고려에서 조선으로 교체되는 격동의 시기에 새 왕조를 설계한 인물이다. 그러나 그가 꿈꾸던 성리학적 이상세계의 실현을 실패한 삶을 살고 죽었다. 이러한 메시지를 담아 <끝>을 제목으로 삼았고, 또 다른 시작을 기대하며 작품 ‘유림가’ 주제에 의한 <시작>과 연계성을 높였다.

2. <유림가>는 새 왕조의 건국 송축과 유교 이념의 정치를 찬양하는 곡이다. 조선 제4대 왕인 세종의 시대 때 작자 미상의 곡인데, 채보되어 내려온 악보의 선율과 리듬을 사용하여 현대음악의 요소들과 결합하여 재창조함과 동시에 ‘납씨가’ 주제에 의한 <끝>에 사용된 선율과 리듬을 차용하여 두 곡 간의 통일성을 부여하였다.

현재의 우리는 역사 속 ‘또 다른 시작’인 <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작>에 있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그 중간 어디쯤 있는 것인지 아직은 알 수 없다. 시간이 흘러야 지금이 어떤 위치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곡에는 세계와 나라가 늘 힘차고 새로운 시작과 같기를 염원하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음악적 아이디어는 국악의 5음음계를 사용하여 <끝>에는 계면조, <시작>에는 평조를 사용하였고, 서양음악의 ‘화성’이라는 틀을 차용하여 현대의 음계로 국악을 재해석하고자 노력하였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연주가 시작되고, 가야금2가 처음 연주하는 화음이 N6이라는 것이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어떤 끝이 있어야한다.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기 위해 전체 조성은 <끝> 전체를 지배하는 단조이되, 시작 화성은 <시작>의 평조 조성 and 비슷하게 장조 느낌을 주는 나폴리 화성으로 곡의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

최영아 “위로(Consolation)” - <청산별곡> <횡살문>

이 작품 “위로”는 고려가요 중 ‘청산별곡’과 ‘횡살문’에 기초한 2개의 소품으로 작곡하였다. ‘청산별곡’은 시용향악보에 총 8연 중 1연의 곡조만 전해진다. 고려말 조선 초를 시대적 배경으로 현실의 고통, 체념, 한탄과 현실도피의 심정, 나아가 청산에의 동경, 이상세계와 삶에 대한 낙관적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위로”에서는 ‘청산별곡’에 나타난 정서와 시용향악보에 기록된 악곡의 내용을 바탕으로 악상을 구성하였다. ‘횡살문’은 고려가요 ‘자하동’의 선율에 두보의 시 ‘증화경’을 엮은 시가로 시용향악보와 대악후보에 전해진다. 내우외환으로 국가가 혼란스럽고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교만하여 황궁의 음악을 멋대로 즐긴 신하(화경)를 풍자한 시이다. “위로”에서는 원곡의 바탕에 힘든 생을 살다간 이들의 넋을 위로하는 마음을 더하였다.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청산을 꿈꾸는 이들에게, 잠들고 눈뜨는 하루하루가 저마다의 청산이 되기를 희망한다.

박윤경 “비두로기” - <유구곡>, “가시리” - <귀호곡>

“비두로기” - <유구곡 維鳩曲>

<유구곡>은 “비두로기”라고도 하는데 새의 울음소리를 비유한 단순하고 짧은 가요로, 이 노래가 가지고 있는 뜻은 ‘비두로기 새도 울기는 하지마는 빠꾸기 울음소리야말로 나는 참 좋더라’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새의 울음이란 임금의 잘못을 말하는 간관을 표현하는데, 비두로기 새는 가냘픈 소리에 잘 울지도 못해 간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반면에 빠꾸기는 맑고 부드러운 소리로 오래도록 잘 우는 새이므로 간관의 직분을 게을리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의 뜻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대의 노래는 제목인 “비두로기”를 중심으로, 임금이 두려워 오히려 울지 못하는 슬픈 비두로기의 마음과 결국에는 빠꾸기처럼 잘 울게 된다는 얘기를 더해, 원곡의 선율을 모티브로 하여 표현하였다.

“가시리” - <귀호곡 歸呼曲>

<귀호곡>은 “가시리”로 잘 알려져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안타까워하며 부른 노래로 애절한 심정을 표현하였다. 보통 여성이 화자로 소개되는데, 남성의 입장에서 불러 본다. ①사랑하는 임을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 ②버림받을 경우 외롭고 쓸쓸한 삶을 두려워하는 심정을 노래한다. 이어서 ③임의 마음이 상할까 두려워 떠나는 임을 잡지 못하는 마음을 드러낸 후, ④홀연히 떠난 임이 곧 돌아오시기만을 애처롭게 호소하는 것으로 시상詩想을 전개하고 있다.

이복남 “송인送人” - <서경별곡>

“더러동성 다리러디러_색,계 色,戒” - <쌍화점>

이 작품은 고려가요 중 <서경별곡>과 <쌍화점>에 나타나는 고려시대 여인들의 적극적인 사랑과 이별의 정한情恨, 자유분방하고 개방적인 남녀 간의 애정행각 등을 음악으로 그려보았다.

“송인送人” - <서경별곡>

“송인”은 사랑하는 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담은 작품으로 고려가요 <서경별곡>의 원가요 내용에 기초하여 작곡하였다. 사랑과 이별의 정한을 주제로 하는 <서경별곡>은 이별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부하며 사랑을 노래한 1연(서경노래),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을 표현한 2연(구슬노래),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과 새 여인에 대한 질투를 표현한 3연(대동강 노래)으로 이루어진다. “송인”은 전반적으로 <서경별곡>의 구조를 따르지만 시조풍의 나레이션으로 시작하는 도입부와 이별을 아쉬워하는 1연 부분을 마지막에 더함으로써 화자의 연모의 정을 강조하였다. 내용 전달을 위하여 노래는 현대적으로 번역한 가사를 사용하였으며 고려가요 원곡의 특징적인 후렴구(아즐가,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리러디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다.

“더러동성 다리러디러_색,계 色,戒” - <쌍화점>

<쌍화점>은 고려 25대 왕인 충렬왕 때 지어진 노래로서 고려가요 가운데에서도 그 노골적인 표현과 음설한 노랫말로 조선시대 금지되었던 ‘남녀상열지사’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영화 <쌍화점>의 OST로 대중에게 알려졌으나 고려가요 원곡은 전해지지 않으며 조선 성종 때 한글가사를 한문가사로 고치고 음악도 편곡하여 『시용향악보』에 <쌍화곡>으로 기록되었다고 전해진다. 하여, 선율은 『시용향악보』의 <쌍화곡>을 인용하였으며 가사는 고려가요의 내용을 현대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전체적으로 가사는 고려가요의 특징인 후렴구(다로러거디러, 더러동성 다리러디러. 위 위 다로러거디러 다로러...)의 사용으로 감각적인 쌍화점의 느낌을 더하였으며 마지막 부분에만 옛글 가사 “그 잔디 7티 덮거츠니 업다 (그 잠자리처럼 지저분한 곳 없다)”를 낭독하며 향락적인 이전의 내용과 대조적으로 이성으로 복귀한 여인의 반응을 강조하였다. “더러동성 다리러디러_색,계 色,戒”는 회회아비, 삼장사의 사주, 우물의 용, 술집아비와 같이 밀회의 현장과 등장 인물만 바뀌는 고려가요 <쌍화점>의 4연 구조를 반영하여 동일한 선율이 반복되는 전체 4부분으로 이루어지나 3번째 단락은 노래 대신 악기와 무용으로 사랑의 느낌을 표현하였다.



주 시 열

작곡가 ‘주시열’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를 졸업하였으며 재학 당시 범음악제 학생 워크숍, 대구국제현대음악제 등 여러 음악제에 작품을 발표하였다. 그는 서울음악제, 부산마루국제음악제작곡콩쿠르 등에서 수상하였으며 앙상블 아인스, 리베 켄넷 등 여러 연주 단체와 함께 작품을 발표하였다. 뿐만 아니라 ‘달나라 여행 가이드’와 같은 창작 뮤지컬 분야에서 작곡으로 참여하였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원 음악과에 재학 중이다. 또한 현대음악창작단체 ‘꾼’ 대표를 역임하고 있으며 앙상블 ‘밍글’ 단원으로도 활동 중에 있다.



류 경 선

서울예고등학교에서 작곡을 전공하고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에 특별장학생으로 입학하여 학사(B.A.)와 석사(M.M.)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연세대학교 동 대학원에서 작곡 전공으로는 최초로 박사학위(D.M.A.)를 취득하였으며 예체능계열 전체 수석으로 졸업하였다. ISCM, ACL, (사)한국작곡가협회, (사)한국여성작곡가회, 21C악회, 창악회, 운지회, 동서악회, 신음악회, 베리타스뮤지케 등의 다양한 악회들과 협회의 회원으로 꾸준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교양교육원 음악전임교수로 재직 중이고 (사)한국작곡가협회 이사와 창악회 감사를 맡고 있다.



이 효 원

작곡가 이효원은 명지대학교 클래식 작곡과 수석 및 동대학원 음악학 석사를 조기졸업하였다. 2017-2020년 (사)한국작곡가협회 기자단으로 활동했으며 제25회 글로벌 전국 음악콩쿠르에서 전체 대상(부산광역시장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제50회 서울 창작 음악제 실내악 부문에서 입상하였으며 제1회 SGPO 차세대 작곡가로 선정됨과 동시에 오케스트라 곡 부문에서 입상하여 서울그랜드필하모닉과 협연하였다. 2020 용인문화재단 전문 예술 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개인작품발표회를 개최하였고 제10회 동서악회 정기연주회에 참여하였으며 2021년 한국음악협회에서 홍보 및 기획담당 부서에서 활동하였다. 현재 동서악회 소속 작곡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 영 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을 수료하였으며, 독일 자르브뤼켄 국립음대에서 작곡을 전공하고 졸업하였다. 국민대학교, 서울대학교, 명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충남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등의 강사를 역임하였고, 동서악회 운지회 등의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예술의전당 음악영재아카데미와 경기예술고등학교에 출강 중이다. 최영아는 현대음악에 아울러 국악에 큰 관심을 가지며 공부해가는 작곡가이다. 민요와 판소리, 장구와 국악기들을 사사받으며 최근에는 우리 음악의 원형을 바탕으로 한 소재들을 작품에 담은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박 윤 경

작곡가 박윤경은 현대의 새로운 소리를 추구함과 동시에 연주자들도 즐기면서 연주할 수 있는 곡을 만들고자 하는 작곡가이다. 서울대 작곡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뉴욕 시립대에서 석사를, 럿거스 대학교(Rutgers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7년 뉴욕 Merkin Concert Hall에서 “Winter Overture for Orchestra”로 데뷔 후 뉴욕, 뉴저지를 중심으로 활동하다 2015년에 귀국, 현재 서울대, 단국대, 명지대에 출강하며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복 남

작곡가 이복남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B.A.) 및 동대학원을 졸업(M.A.)하고 미국 럿거스 대학에서 작곡으로 박사학위(Ph.D)를 취득하였다. 4회에 걸친 작곡발표회를 비롯하여 뉴질랜드, 루마니아, 미국, 영국, 독일, 이태리, 중국, 러시아, 일본, 불가리아 등 국내·외 여러 음악제에서 작품이 초청 연주되었다. 2010년 이후 한국전통음악의 소재들과 서양 어법의 결합을 통한 현대적 감각의 예술적 작품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작업을 계속해오고 있다. (사)한국작곡가협회 이사장, 한국예술가곡연합회 부회장, (사)한국여성작곡가회 사무총장, 명지국제음악제의 예술감독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명지대학교 예술학부 교수, 동서악회 회장 및 운지회, 미래악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회 / 주재근

정호 국악문화재단 대표.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



예술감독 / 길석근

추계예술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우리가락교육연구회 회장
동서악회 부회장

임원소개

< 임 원 >

회장 이복남 / 부회장 길석근 / 감사 김광희 / 사무총장 이해정 /
재무이사 박윤경 / 연구이사 심유주 / 연주이사 윤석만 /
홍보 및 기획이사 김수혜

< 회 원 >

김은혜, 김위연, 김종균, 류경선, 안혜윤, 이효원, 정미선, 정현수, 최영아, 권용상,
김규환, 김슬림, 김진찬, 성상연, 연훈관, 이지연, 조수황, 허윤재, 허정임, 황삼열

간사 이현진



대금_김규환

추계예술대학교 국악과 및 동국대학교 졸업
2013 KBS국악관련한 협연 공모 소금 협연
2013 행주전국국악경연대회 영인부 우수상



Alto Flute_백은비

서울대학교 재학
금호영아트스트 독주회, 금호제임버, 동의동클레식 'Arete of Imagination' 연주
서울대학교 관악동문회 주회 콩쿠르 1위, 이화경향콩쿠르 2위 입상



Bass Flute_최현욱

서울대학교 재학
금호영아트스트
현대사 정몽구 장학재단 장학생



해금_김슬림

한양대학교 국악과 졸업 및 동대학원 재학중
제39회 전국난계국악경연대회 학생부 은상 수상
제33회 동아국악콩쿠르 일반부 동상 수상



25현 가야금_이해정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병창 및 산조전수자
동서악회 사무총장
경기가야금앙상블 대표



거문고_박영승

추계예술대학교 국악과 졸업
국립국악고등학교 졸업
현)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지도 단원



아쟁_오하림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한국음악과 졸업
국립국악고등학교 졸업
네이버 그라폴리오 창작지원프로젝트<음악>부문 당선 및 작품연재



국악 타악_이유정

추계예술고등학교 졸업
국립국악중학교 강사
한국예술종합학교 창작무용원 반주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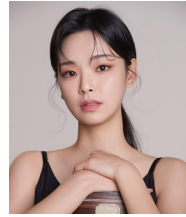
대금_윤석만

국가무형문화재 제117호 봉산탈춤 이수자(악사)
민족사관 고등학교 출강
동아 국악콩쿠르 일반부 은상, 동상
동일앙상블 대표



25현금_성현주

한양대학교 국악과 학사 석사 및 동대학원 박사
제7회 구미전국국악대전 일반부 최우수상
한국 가야금 연주자협회 회원
영금연구회 회원



25현금 II_최연수

추계예술대학교 학사 및 행정교과 재직
Cuba 단원
Plan B 단원
김계옥 연주단 단원



무용_권용상

세종대학교 검입교수
추계예술대학교 외래교수
강원대학교 출강
제28회 서울무용제 대상작 주역연가상 수상
제20회 전국무용제 안무상, 연기상, 은상 수상



클라리넷_김국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국립음악원 졸업
프랑스 에브리,쥘리예음악원 졸업
프랑스 U.F.A.M 국제 콩쿨 실내악 부문 1등
이화여대,영지대,한양대,단국대 작곡과 특강
현) 316앙상블리더, 목원대 외래교수



대아쟁_이화연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아쟁수석
아쟁앙상블 Bowing 동인
중앙대학교 출강



소리_김용화

한양대학교 국악과 및 동대학원 졸업(석사)
국가지정문화재 제5호 판소리 흥보가 이수자
포천 시립 민속예술단 단원



테너_오세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재학 중
성음음악 콩쿠르 1등 및 예술음악상 수상
국립오페라단 <라트비아바다> 가수들 출연
SNU 아카펠라 멤버



바리톤_남형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음악고육신문사콩쿠르 2등
Mnet, tvN 너의 목소리가 보여9 출연
'위로' 음악회 공연(서울시 주최, 클래식아트
전반 오케스트라 '변신' 공연
SNU 아카펠라 멤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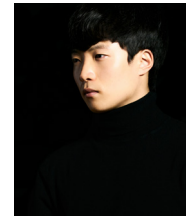
베이스_노광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재학중
과천국제콩쿨 1등, 이화경향콩쿨 2등
SNU 아카펠라 멤버



피리_성상운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졸업
중요무형문화재 제46호 피리장악 및 대취타 전수
국악팀 '남만판소리' 동인



타악_김용진

서울대학교 기악과 타악전공
WF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원,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객원
서울대 타악기앙상블 SNUP, 타악기 앙상블 그룹 '소리퍼커션', 현대음악창작단체 '관' 멤버



정가_구민지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음악과 졸업 및 동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국가무형문화재 가곡 이수자
음악그룹 '구이임'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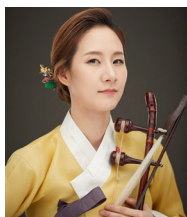
민요_김진찬

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 이수자
한양대학교 박사수로
동일대학교 출강



생하eng_박해진

서울대학교 국악과 졸업 및
한국교원대학교 음악교육과 석사 과정
중요무형문화재 제 1호
종묘제례악 전수자
서울페리아상블 동인



해금_허윤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박사 졸업
제 14회 대한민국여성문화예술경연대회
기악부 금상
현 수원대학교 추계예술대 교육대학원 출강



무용_송한나

상명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석사 졸업
제48회 신인무용콩쿠르 창작부문 은상
제22회 중남무용제 대상

제12회 동서악회 정기연주회

우리가락 project

<色多른가요? 현대음악과 고려 가요^{歌謠}의 만남>

일시 / 2022년 10월 12일 수요일 7시 30분

장소 / 국립국악원 우면당

동서악회 2022 공연

동서악회 · 불가리아 소피아뮤직위크 국제음악제 교류 및 음악회 초청 사업

1. 불가리아 Momchil Georgiev 초청 세미나

일시 및 장소: 2022년 11월 17일 목요일 17:00 / 일신홀

주제: 불가리아의 현대음악 및 창작계의 현황에 관한 소개

2. Ardenza Duo 초청 :

동서악회 · Sofia Music Weeks Exchange Concert

일시 및 장소: 2022년 11월 17일 목요일 19:30 / 일신홀

초청 연주자: Duo Ardenza(Daniela Dikova, Docent Galina Koycheva)